

대학·연구소의 우수특허 발굴에 나서

2008년 공공기술평가지원사업 시행

특허청은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략적 특허관리와 우수특허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 보유특허에 대해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2008년 공공기술평가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금년에는 총 560여 건의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기술에 대해 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며, 참여기관 당 최대 8천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08년 사업에서는 공공기관 지식재산 관리시스템(PIAMS : Public

Intellectual Asset Management System, <http://www.ipv.or.kr>)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그 평가 결과를 DB로 구축하게 된다.

「지식재산경영으로 안심하고 기업하기」 출간

중소기업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사례 소개

특허기술 유출, 생산제품의 특허권 미등록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던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특허청 심사관들의 컨설팅 사례집이 발간됐다.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특허,

상표, 디자인 심사관으로 구성)은 2006년 9월 '중소기업 특허경영 지원단' 으로 발족한 이래 현재까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135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문과 멘토링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

으며, 최근 이러한 지식재산경영 컨설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중소기업(8개사)의 이야기를 엮어 사례집 「지식재산 경영으로 안심하고 기업하기」를 펴냈다.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대학 특허등록률 64.1% 증가

성균관대, 포항공대 등 9개 대학에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추가파견키로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대학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조사한 결과, 어드바이저 활동 이후 2006-2007 2년간 해당 대학들의 연평균 특허출원율이 45.2% 상승했고 특허등록률은 연평균

무려 6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대학의 인식제고에 따라 대학의 특허출원과 등록이 크게 늘어났는데, 특히 특허등록률이 급증한 것은 어드바이저들의 특허

관리 활동에 따라 대학이 특허출원 전에 선행기술조사를 철저히 하고 특허명세서 작성을 정교하게 하는 등 특허관리 역량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국제상표출원 증가율 세계 4위

WIPO, 2007년 국제상표 출원 통계 발표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제상표 출원 증가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공식 발표한 '2007년 국제상표출원 통계'를 인용하여 우리나라의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국제상표 출

원이 330건으로 전년대비 73.7%가 증가해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전세계에 편리하게 국제상표를 출원할 수 있도록 마드리드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간에는 한번의 상표 출원으로 지정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국제상표 출원 제도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3년 4월 가입했고 현재 82개 회원국이 이 시스템에 가입해 있다.

대전지역 특허창출 및 사업화 추진

대전광역시와 특허업무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정 체결

특허청은 지역특화산업 육성기관인 대전 테크노파크(TP)에 '대전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스타기업육성, 특허정보종합건설당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 대전지역의 특

허 창출과 사업화 촉진에 적극 나선다.

이와 관련 전상우 특허청장은 지난 2월 26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성효 대전시장과 '특허 업무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업무협정에 따라 양 기관은 대전지식재산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 특허 창출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08년 디자인 맵 구축사업을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의 디자인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담금질

특허청은 올해 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한 디자인 정보시스템구축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한다. 디자인 맵 구축사업은 '06년도에 2개 물품에 대

해 시범실시를 하였으며, 작년에는 20개 물품에 대한 맵 작성과 콘텐츠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금년에는 18개 물품에 대한

맵 작성과 22개 물품에 대한 업데이트 및 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특허소송비용 지원 확대

해외 특허소송비용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특허청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개인 및 중소기업의 특허소송에 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해외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등록한 개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부정경쟁방지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도 지원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심판 또는 소송비용은 현행 건당 3,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확대되고, 무효 또는 취소심판은 건당 1,000만 원, 침해조사비용은 건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

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으나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소 제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2006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허실무자 무료교육 실시

정기교육 외에 방문교육도 추진

특허청은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출원방법 등에 대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특허·상표업무 담당자를 주요 대상으로 역삼동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실시하는 정기 교육 이외에도 지방소재 기업체 등에서 교육 수요가 있어 요청하면 현장 방문 교육도 실시해 준다.

제공 특허청

